



2012년 9월 7일 선교 활동 시작 [필리핀 비낭오난 선교센터 전경]

1. 전교인 멤버십 트레이닝

필리핀에 무더위가 찾아오고 학생들은 긴 여름방학을 보내고 있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어린이 여름성경학교를 개최하여 행사로 마쳤지만 우리 DMC는 여름성경학교를 통해 새로운 어린이 제자 물색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게 된다. 한 달이 지난 지금 약 20명 정도의 어린이들이 남아서 열두 번째의 제자 선택을 기다리고 있는데 두 달간의 테스트를 통해 6월 중에 새로운 제자 선택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한편 5월 1일(금)은 노동절 공휴일로 1박 2일간 멤버십 트레이닝이 가능하다는 생각에 전 제자들을 소집하여 A, B, C 전체 3개 그룹 멤버십 훈련을 진행했다. 평소 제자들의 연령별 그룹 교제는 원활하지만 연령대가 다른 그룹간의 멤버십은 이런 기회가 아니면 이루어지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전체 강의와 그룹별 창작발표 그리고 게임들이 진행되면서 제자들은 자연스럽게 나이와 그룹을 초월하여 하나가 된다. 그러므로서 동생들은 형들을 의지하고 언니들은 동생 제자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전 제자 멤버십 트레이닝



그룹 활동을 통한 단합훈련



무더위 속 근처 수영장에서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다

교회에서 하룻밤을 함께 지낸 제자들은 다음날 토요일 아침, 주일 예배 준비를 위한 교회 대청소를 하고 다 같이 근처 수영장으로 향했다. 즐거운 비명과 함께 물속에서 마음껏 뛰어노는 제자들을 바라보니 보는 사람의 마음까지도 흐뭇하다. 평소 마음껏 이런 즐거움을 누릴 수 없었던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것 역시 한국에서 보내주는 후원자들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기에 다시 한번 여러 후원자님들에게 감사를 전한다.

때를 같이하여 DMC의 성인 그룹도 멤버쉽 강화를 위해 음식과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야외로 나갔다. 지프니 2대를 렌트해 주겠다는 말에 용기를 얻었는지 꽤 많은 멤버들이 참석하여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워낙 더운 날씨라서 야외 활동이 원활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각자 만들어 가지고 온 음식들을 나누고 물속에 들어가 어린아이들처럼 장난치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대부분 우리 제자들의 부모들로서 이들은 어려운 시대에 태어나 너무나 가난하게 살아왔기에 공부를 많이 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자녀들 세대처럼 지식적으로 그룹을 리드해 가지는 못하지만 주일 예배 때마다 좋은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봉사 활동에도 모범을 보여줌으로 DMC 한 그룹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 주고 있다.



성인 그룹 단합대회



즐거운 물놀이를 잠시 쉬면서

2. 교육관 앞 계단 공사

지난 4월에 있었던 부활절 행사에 교육관 앞을 축제 장소로 꾸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었다. 더운 날씨에 시원한 그늘이 되어주는 큰 망고나무 덕분에 장소 활용도가 너무 좋았다. 그러나 한 가지 불편한 점은 중간 담장이 쳐져 있어서 접근이 어려워 늘 돌아다녀야만 했다. 해서 나는 이후 여러 가지 궁리 끝에 담장 일부를 헐고 그곳에 계단을 설치하기로 마음먹고 공사를 시작했다. 마침 사위 박철우 선교사가 나를 돕고 있기에 용기를 내어 일을 시작했지만 축대를 쌓고 그 긴 계단을 설치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 제자들을 동원하여 흙과 돌을 나르고 일꾼들의 돌 축대와 계단 쌓는 일을 도왔다. 몇 주간 현장에 나가 있었더니 나와 박철우 선교사의 얼굴이 검게 그슬렸다. 3주간에 걸친 작업 끝에 계단이 완성되어 제자들의 편리한 이용에 그동안 외졌던 지역이 도리어 최고의 쉼터로 거듭나게 되었다. 물론 오후 시간 서쪽 방향의 강한 햇볕을 차단해야 하는 숙제가 남아 있으나 앞으로 잘만 꾸미면 활용도가 매우 높은 장소가 되어질 것이다. 선교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좋은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일이다. 선교센터의 장소나 건물을 이용하는 청소년 혹은 주민들의 선호도를 높여 선교의 효율성을 살리는 일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제자들도 동참 작업 진행



워커들이 축대를 쌓고 있다



계단 하나하나 설치하고



교육관 앞 계단 공사 완성

3. 어머니 주일 행사

한국교회는 5월 첫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5월 둘째 주일은 아버지 주일로 지정하여 지키고 있다. 그러나 먼 과거에는 5월 8일이 어머니 날, 그래서 어머니 주일이었던 것을 부모 공경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당시 정부가 아버지날로 고쳤고 또한 아버지 주일로 바뀌었다. 하지만 필리핀에는 5월에는 어머니 주일, 그리고 6월에는 아버지 주일로 나누어 지키고 있다. 우리 제자들은 어머니들 모르게 몇 주 전부터 비밀리에 꽃과 선물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5월 둘째 주일이 되자 모든 어머니들을 강단 앞으로 모셔 그동안 열심히 준비하여 만든 꽃을 달아드리고 감사 메시지를 전하는 등 감동적인 시간을 연출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저녁 시간에 모든 어머니들을 초청하여 전망 좋은 교육관 3층에 저녁 식탁을 준비하여 대접했다. 우리 내외도 제자들에게 불러 나가 함께 그 모임에 참석하여 응송한 대접을 받았다. 이번에는 딸, 사위 내외가 함께 있어 우리 내외 마음이 더욱 편안하고 푸근했다. 제자들은 식사 후 어머니들을 위로하고 손을 들어 축복하는 아름다운 시간을 가졌다. 한편 다음 달 6월에는 아버지 주일이 있다는데 과연 우리 제자들이 이 두 행사를 다 준비해서 치를 수 있을지 그것이 의문이다.



어머니 주일 예배



어머니들에게 꽃 증정



저녁 식사에 초대하여 위로



어머니들을 위한 기도

4. 주니어 피아노 교습생 발표회

우리 DMC 의 제자가 되면 기본 제자 훈련과 함께 제일 먼저 주어지는 과제는 피아노 교습이다. 우리 선교센터는 예술 문화 컨셉으로 제자 훈련이 이어지기 때문에 초반에 피아노를 잘 익혀둔 제자와 그렇지 않은 제자는 후에 엄청난 차이가 나타난다. 필리핀 공립학교에 아직 음악 과목이 없는 탓에 신입 제자들은 피아노를 배우는 일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예술적 소양이 있는 어린이들은 금방 적응하여 레슨을 이어 가지만 대부분의 어린이들은 얼마 후에 피아노 학습을 포기해 버린다. 훗날 제자들 중 악기 팀을 만들고 합창을 익히는 과정에서 그 결과가 여실히 드러나지만 그렇다고 모든 제자들에게 피아노 레슨을 강요할 수는 없다. 아무튼 꾸준히 피아노 학습을 이어온 제자들이 주니어 제자 가운데 열다섯 명인데 5월 16일 토요일 오후에 이들의 피아노 발표회가 있었다. 아직 클래식 음악 발표에 어떤 예의를 갖추어야 하는지 잘 모르는 아이들이지만 나름대로 연습한 것을 보여주느라고 애를 많이 썼다. 몇 명의 제자들은 피아노 연주 실력이 뛰어나 훗날 좋은 예배 반주자가 되리라고 확신한다. 피아노 레슨을 위해 오랜 기간 힘써 준 니키 전도사에게 감사한다.



주니어 제자 피아노 발표회

한 사람씩 피아노곡 발표



발표자들의 순서가 마쳐지고 격려 순서

5. 신입 선교사 방문 인사

2026년도 4월과 5월에 걸쳐 약 40일간 실시된 PCK 총회 파송 선교사 훈련이 끝났다. 이번 선교사 훈련에는 우리 필리핀 제일선교회에서 추천해 준 조현제 양현숙 선교사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은 훈련을 마친 다음날 5월 16일(금) 바로 필리핀으로 들어와서 우리 제일선교회 임원들을 찾아 감사 인사를 했다. 그리고 앞으로 두 내외가 거처할 집을 알아보고 또한 사역할 장소인 ‘마닐라 한국 아카데미’ 에도 찾아가서 인사를 드렸다. 신입 선교사 두 내외는 이번에 선임을 맡게 된 김종현 선교사의 안내를 받아 우리 비낭오난 선교센터를 방문했는데 신입 선교사가 훈련을 마치고 먼저 선교회 회장에게 찾아와 인사한 일도 드물거니와 파송 받기 전 현지를 답사하여 자세한 내용을 파악해 보려는 자세가 너무나도 좋게 보였다. 그들은 우리 선교센터의 잘 정리된 역사관을 관람한 후 앞으로 필리핀 선교사 생활을 시작하면서 선교 기록을 꼼꼼히 남겨보겠다는 결심을 남기고 한국으로 귀국했다. 그들은 한국의 제주 중문교회가 창립 111주년을 맞이하여 파송하는 첫 번째 선교사라고 한다.



이날 선교센터에 꽃비가 내렸다



선교센터 역사관 관람



비낭오난 선교센터의 스태프들과 함께 기념사진

6. 한국 방문 후 새로운 선교 계획을 세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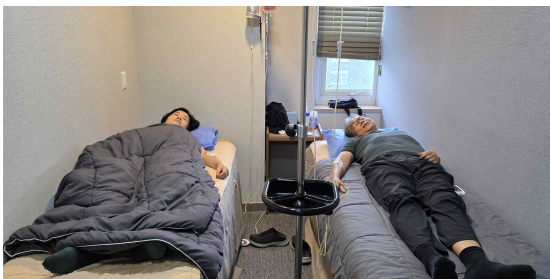
2026년 5월 18일(토) 우리 내외는 한국의 병원 정기 검사를 받기 위해 6개월 만에 다시 한국에 들어갔다. 이번에는 혈액과 소변검사 그리고 뼈 골밀도 검사 등 간단한 검사만 받았다. 일주일 후에 검사 결과를 보기 위해 병원을 찾아가면서 우리 내외는 “이번에도 좋은 결과를 주셔서 필리핀에서의 선교 사역을 계속할 수 있게 해달라” 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다. 결과, 담당 교수는 모든 수치가 다 양호하니 다시 6개월 후에 보자고 하며 다음번에는 좀 더 세밀한 검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우리 내외는 좋은 검사 결과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약해진 체력 강화를 위해 두 내외 모두 비타민 링거 주사를 맞고 필리핀으로 다시 돌아왔다.



좋은 검사 결과를 받고



정기 검진 이대목동병원



체력 보강을 위해 링거주사



필리핀으로 다시 돌아왔다

필리핀에 돌아온 우리 내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다음과 같은 비냥오난 선교센터의 미래 계획을 세워 현지인 사역자들과 제자들에게 발표했다.

- 1) 비냥오난 선교센터는 15년간의 한국 선교사의 사역이 마쳐진 후 가능한 외부의 후원을 의지하지 않고 ‘제자삼는교회’ 스스로 자립하도록 노력한다.

- 2) 매년 12명씩 제자 삼는 사역은 계속하되 미래에 선발되는 제자들의 개인 장학 후원은 고등학교 졸업시까지 선배 제자들이 담당한다.
- 3) DMC에서 선택된 모든 제자들은 대학을 반드시 졸업하는 전제로 지원하되 장학 재원은 선교센터 대지 임대를 통해 나오는 장학기금으로 충당한다.
- 4) 선교센터의 교회 건물은 200명 수용 한도이므로 예배 인원이 채워진 후에는 건물을 더 증축하지 않고 해외 혹은 타지역 선교에 집중한다. (현재 약170명 회집)
- 5) 모든 제자들은 십일조 생활이 원칙이며 동시에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한 제자들은 후배 제자들을 후원하고 양육하는 일에 힘쓴다.

이처럼 선교의 열매는 자립으로 나타나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선교지의 현실이 그러하지 못하다. 선교 대상 국가 성도들의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그들 스스로 성전을 건축하고 자립해 나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한국교회가 동족 전쟁 이후 폐허 가운데에서도 네비우스 선교 정책을 적용하고 가르쳐 자립형 교회로 성장 부흥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선교지에서 세운 제자와 성도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지난 14년간 한국교회 성도들이 필리핀 비낭오난 제자들을 장학 후원하여 대학에 보내주고 인물로 키워더니 이제 그들 스스로 자기 나라 어린 동생들을 돕기 시작했다. 만일 한국교회가 선교사들이 사역하는 선교지 청소년들을 도와 그들을 발전시킨다면 그들 또한 자기 나라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로 성장해 나갈 것이며 더 나아가 은혜의 빛을 갠 선교사들도 나오게 될 것이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선교 협력으로 자립 선교의 열매가 곳곳에서 맺혀지기를 기도한다.

[비낭오난 선교센터 5월 기도 제목]

1. DMC 가 미래 한국교회의 좋은 선교 모델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2. 새로운 제자 선택과 그들을 이끌고 양육해야 할 선배 제자들의 조합이 잘 이루어지도록
3. DMC 의 미래 목회 이양이 순조롭게 은혜 가운데 이어지도록



thkimmsn@hanmail.net

[010-5402-9125 김태현 선교사]

[010-5033-9125 홍영옥 선교사]

카톡으로 연결하여 연락주세요